

SNU 고전 100선 읽기 - 제4강. 루쉰의 <광인일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형준 교수님

광인일기를 읽은 고전 Class 조들의 토의내용을 살펴보며

「광인일기」가 보여주는 식인(食人)에 대해서

「광인일기」는 식인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는데, 우리는 이 식인이라는 단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대외적인 문제인지 내부적인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 식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직설적으로 표현되었는지,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식인이라는 행위는 실제로 사람을 먹을 수도 있다는 점(즉,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일단은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인이라는 행위 자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인일기」를 읽은 좀 많이 다른 시각들

1. 광인일기가 공포소설이라고 볼 수 없을까?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광인일기」를 해석하는 경우. 이 경우 실제로 형이 동생을 잡아먹고, 동생을 찾아온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게 참신한 발상이기는 하네.*
2. 광인(狂人)이 실제로 피해망상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나온 척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후보로 떠난 그는 아직도 미쳐 있는 상태일 것이다.

다만 「광인일기」를 쓴 루쉰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뜻으로 읽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해석이 반드시 저자의 의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독자가 그 작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는 법이다.

「광인일기」의 저자 루쉰의 일대기

「광인일기」를 쓴 루쉰에 대하여 책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다. 읽을 때에 독자는 없는 정보를 유추하기도 하는데, 이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광인일기」에 대하여

유사한 선행 작품들과의 비교

1. 고평(1809-1852)의 <광인일기> (1835 作):
42세 독신남 하급관리(모술, 관료주의 속에서 만년말단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관리)가 미쳐가는 이야기(1인칭 시점 기술임). **과대망상증**이 심해져서(애완동물과 대화를 하고, 자신이 모시는 국장의 딸을 짝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스페인 국왕이라는 망상증까지 진행) 정신병원에 갇힌다.
(루쉰이 고평의 <광인일기>를 읽고 논평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아마도 루쉰은 이 글의 영향을 받기는 했을 것이다. 다만 루쉰의 글은 이 글의 느낌과는 꽤 다르다.)
2. 톨스토이(1828-1910)의 <광인의 수기(미완)> (1884 집필, 1912 출판):
톨스토이와 거의 같은 모습의, 매물로 나온 영지를 확인하기 위해 떠난 여행 중 (광기적) 발작이 시작된 귀족. 흰색 호텔 방에서 **죽음의 공포**를 대면한다. 옛날에 하얀 눈밭에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죽음의 공포**에 대면했던 과거가 떠오른 것이다. 그는 (가톨릭이어서) 속죄의 기도를 올린 뒤, 그는 영지 구입을 포기하고 교회 앞의 걸인들에게 가진 돈을 모두 나눠준다. (미완, 아마도 톨스토이가 직접 겪은 일에 기반하여 책을 썼을 것으로 추정)
(루쉰은 아마도 이 작품의 출판연도를 고려할 때 이 작품을 읽지 못했을 확률이 높음)

3. 모파상(1850-1893)의 <오를라(일기 형식의 개작판)> (1887 作):

Le Horla(바깥 + 여기, 바깥에도 있고 여기=사람의 내면에도 있는 존재)라는 존재에 대한 공포로 미쳐가는 신경쇠약증 환자(상류층)의 이야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느낌이 발동. (그 존재를 Le Horla라고 명명, 그 존재는 분명 자기 바깥에 있음에도 자기 안에도 있는 이중적 존재) 오를라를 죽이기 위해서 집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에 일기에 저 오를라를 죽이려면 내가 죽어야만 하겠다 - 라고 쓰면서 마무리.

루쉰의 「광인일기」와 같은 광인(狂人)을 다루는 이 3개 소설을 비교해보자.

이 3개 소설들은 모두 사실적인 소설이다. (판타지나 환상 세계를 다루고 있지 않은, 현실 세계를 기술하고 있음). 루쉰의 「광인일기」도 사실적인 것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사실적인 소설이다. 따라서 루쉰의 「광인일기」는 우화는 아니다. (이솝 우화를 생각해보자. 동물이 말을 하고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이 현실적인가? '게으름'과 같은 추상적 존재가 인물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가?)

따라서 루쉰의 「광인일기」는 우화로 보아서 안된다.

고골과 모파상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 정신병이 **심각해져서** 끝나고,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속죄를 통해 정신병이 **완화되어서** 끝난다. 루쉰의 광인일기는 앞에 붙어 있는 서문까지 고려해보면, 정신병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문에 제시된 형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정신병의 경과를 따라 나누어보면, 고골과 모파상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는 정신병이 **심각해져서** 끝난다. 고골과 모파상은 공교롭게도 같은 나이로 죽었는데, 둘 다 스스로의 정신병이 **심해진** 끝에 죽는다. (고골과 모파상은 자신들이 썼던 광인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과 비슷한 형태의 결말을 맞는다. / 어쩌면, 고골과 모파상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에는 자신이 투영된 것은 아닐까? - 근데 어떻게든 작품에는 스스로가 투영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전적이지 않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자전적인 요소를 찾게 되니까... 자서전과 완전 자전적이지 않은 작품 사이의 자전적 작품의 경우는, 자신의 모습을 작품에 넣되 드러내지 않는다. - 고골과 모파상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인물을 그리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 넣은 듯.)

톨스토이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자신을 드러내다시피 쓴 듯. 루쉰의 광인일기는 톨스토이와 고골 & 모파상의 중간 정도에 있는 듯. 루쉰의 광인일기를 읽어내기가 이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음.

톨스토이와 루쉰의 삶에 공통점이 있음. 톨스토이는 말년에 계몽주의 운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주도하여, 이른바 『톨스토이 운동』이라는 운동을 만들어내고 사후에도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들었음. (영지 구입을 포기하고 교회 앞의 걸인들에게 가진 돈을 전부 나눠주는 맥락이 발전적으로 진행된 셈?) 루쉰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평생 계몽에 헌신한 사람임 (젊었을 때에는 단순 계몽주의 + 말년에는 루쉰이 추구한 사회 모습의 일단편에서의 사회주의). 그리고 두 사람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결말이 정신병이 **완화되는** 결말로 종결됨.

중국 문학자들은 한 때 루쉰의 <광인일기>의 결말, 즉 관리가 되어 정신병이 치료된 것을 두고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렸다고 보았으나, 교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음. 톨스토이와 함께 보면, 그 부분을 루쉰이 평생에 걸쳐 한 '계몽운동'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코멘트는, 그 관리가 되었다, 후보가 되었다*라는 말이 *관직에 나가서 오히려 자신이 광인(狂人)이던 시절에 깨달은 바를 통해 말 그대로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루쉰의 광인일기가 처음 발표되었던 『신청년(新青年)』

1918년 5월 초기에 발표됨. 소설의 맨 앞에 6줄이 붙어 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서문'이라고 부르는데, 루쉰의 초기 발표 당시에는 이 부분을 '서문'이라고 따로 칭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제1장의 내용 전에 붙어 있는 내용으로 제시될 뿐이다.)

루쉰의 초기 발표작에서 제1장의 첫문장 - 흔히 의역되기로는 '오늘 밤은 달이 참 좋다'는 사실 중국어문 상으로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다. 그러나 단지 의역을 할 때에 완전한 문장으로 의역해버릴 뿐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루쉰의 일생과 「광인일기」

루쉰은 중화민국의 교육부 대리 직급(굉장히 낮은 직급)으로 임명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광인일기」의 서문에 제시되는 주인공이 관리로 간 것을 연상시킨다.

작가인 루쉰(1881-1936)은 1881년 절강성 소흥에서 출생. 1902 - 1909 日本 유학(의대 중퇴, 문화운동 투신, 평론, 번역 등, 잡지 창간을 추진, 1906 환등기 사건 발발: 러일전쟁이 끝난 직후 1906 여름 or 가을에 슬라이드를 보는 환등기를 러일전쟁의 승리 선전 내용이 나와버림 - 내용: 중국 사람 하나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칼을 든 일본군이 목을 치려 하고 있고, 그 바깥을 일본군이 총 들고 둘러싸있고, 그 바깥을 중국 사람들이 모여들어 원 형태로 구경꾼 형태로. 설명: 러시아군의 스파이 노릇을 한 중국 사람을 간첩죄로 처형하는 장면... 일본 학생들이 국뽕에 취해서 난리가 났는데, 중국 출신의 루쉰은 충격을 먹음, 루쉰은 그 둘러싼 대중들을 마비되었다고 봄.... (정신이 마비된) - 나는 의사 할 것이 아니라, 마비된 정신을 치료해야 한다고 의대 중퇴로 이어짐) - 일본 유학 당시에 계몽 잡지(신생新生)을 펴내려다 실패해서 크게 좌절. 또한 소설과 책을 펴내서 계몽 시도한 것도 다 실패 ('광인일기'에서 광인이 소리치는 것과 동형적)

1909년 귀국 후, 항주의 절강양급사범학당 교사, 소흥부중학교 교감. 1911년 신해혁명 당시(혁명군 조직도 하고 개교생을 하다가(계몽) 포기하고) 교육계 1912년 2월 남경정부의 교육부 직원(참사, 지금의 대리 자리, 당시 교육부 장관에 매우 개혁적인 인물이 있었음.)로 취직하고, 북경 천도와 함께 북경으로 이주. 소흥회관에 별채를 얻어 독신 생활을 하며, 고대 석문 수집에 몰두. (이 때 진정으로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매우 몰두)

1918년 철방(Iron Room) 일화, <광인일기> 집필 및 발표. (루쉰의 성숙한 계몽운동은 <광인일기> 이후로 짝 - 이어짐.)

루쉰은 성장했지, 변질된 것은 아니다!

단편소설 <광인일기>는 어쩌면, 루쉰의 과거 미숙했던 <혁명> 운동을 반성하는 서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개의 자아, 혹은 세 개의 자아

1. '실재적 자아'와 '잠재적 자아':

반성하는 자아(서문의 나, '안 미친 상태')와 반성되는 자아(일기의 자아, '미친 상태')로 볼 수 있을까? (이 틀로 광인일기를 볼 수는 없을까? - 서문의 나가 '일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반성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우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레고리의 형태로.)

2. 그리고, 그 두 자아를 관찰하는 '예술적 자아':

이 자아는 두 자아를 동시에 보면서 두 자아를 소설로 동시에 서술하는 자아이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루쉰의 「광인일기」에서 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다음의 질문을 할 수 있다.

1. 사실 세 자아는 한 사람이 아닐까?

2. 그러면 이 사람을 루쉰 자신이라고 하여, 루쉰 자신과 이 소설의 해석 프레임을 연결짓는다면 '반성'이란 무엇에 대한 것일까? (물론 루쉰의 소설이 자서전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루쉰의 스스로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3. 「광인일기」에서 미친 상태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각성 상태의 성숙으로, 그리고 후보로 갔다는 소설의 내용은 새로운 실천의 모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광기(狂氣) 알레고리의 의미

루쉰은 1919 作 <약>이라는 단편 소설을 이어 발표하였음. 이 소설은 찻집을 경영하는 가난한 자영업자 부부가 있는데, 그 집의 아들이 폐병에 걸린 이야기이다. (그 당시에는 약이 없어서 폐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음) 이 때 당시 민간 요법으로는 사람의 피를 먹으면 폐병이 낫는다는 것이 있어서, 부모님은 망나니에게 돈을 쥐서 사형장에서 참수를 시킬 때 나오는 피를 받아 큰 만쥬(찐빵)에 적서 애에게 먹인다. 그러나 폐병이 나을 리는 없어서, 아이는 죽어 공동묘지에 묻힌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이 이야기에서 사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반청 정서적 인물이어서 "이 청나라의 천하는 우리 모두의 것(공화정체적 사상)"이라고 말했다가 옥리 아이에게 따귀를 맞고 옥고를 치렀는데, 그가 결국 사형당해서 그 피가 만쥬에 적혀진다.

소설의 마지막에는 폐병으로 죽은 아이의 어머니와 처형당한 사위의 어머니가 동시에 우연히 공동묘지에 와서 마주치는 장면이 등장함.

<약>의 장면 중에서는 부모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수군거리는 장면이 있다.

"아이(따귀를 때린 옥리 아이)가 불쌍하다구(이 말을 따귀를 맞은 그 사위가 아이에게 말함)..... 미친 소리, 완전히 미쳤군." 희끗희끗한 수염이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다. (주권 사상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논평하는 것) "미쳤어." 스무 살 남짓한 사람도 문득 크게 깨달은 듯이 말했다. (미쳤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미치지 않은 것을 쓴 것에서 오는 알레고리)

1. <약>의 광인과 <광인일기>의 광인 비교

사위는 미치지 않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미쳤다고 함.

광인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마저도 스스로가 미쳤다고 말했으며, 병이 나은 뒤에는 자신이 미쳤었던 것을 되돌아보았다.

2. 철옥자(Iron Room)의 측면에서의 비교

철옥자에서는 깨어 있는 사람(각성자, 작가 자신)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거나, 위에서 아래로 쳐다봄. 그러나 갇혀 있는 사람(마비자)은 안에 갇혀 사실상 죽어 있음. (철옥자는 창과 문이 없는, 두꺼운 철판으로 된 옥면체 방 / 이 안 사람들이 갇혀 정신을 못 차리고 죽어가고 있음. 그런 사람들을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누가 이야기를 함. 깨우지 않으면 모르고 죽겠지만, 깨우면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 철옥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 Iron Room의 관찰자는 사실 체계 밖(철옥자의 밖)에 있다. 계몽주의의 이것이 한계이다. 사실 계몽주의는 각성한 자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아 탄압으로 이어지고, 결국 탄압적으로 이어져 실패한 계몽주의의 역사를 낳았다. (계몽주의의 한계)

그러나 <광인일기>와 <약>에서 광인 그리고 사위는 안에 갇혀 있으며 아래에 매여 있다.

루쉰은 중화민국 정부가 북경으로 이사갈 때 따라가서 (가족은 두고 혼자 가서) 교육부 대리로 일하면서, 별채를 얻어 사는데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고전 탁본을 모으고 연구를 하며 세상과 손 끊고 살았다. 근데 1915년부터 나온 신청년(新靑年)이라는 잡지를 만드는 후배 中 1인이 글 좀 쓰라고 종용했다. 그런데 거기서 루쉰이 '철옥자'를 이야기한다. (루쉰은 계몽에 회의적) 이 때 후배 1인은 그래도 철옥자의 사람들을 깨워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 라고 그가 소설집의 서문에 썼다. (사실 가식이나 핑계 아닐까 싶은....)

Iron Room(철옥자)의 비유는 당시의 중국의 상황을 아주 잘 비유한 비유로 손꼽히는 중.

진짜 사람은 누구인가? - 루쉰의 「광인일기」에서

- 광인일기에서 동생은 형에게
벌레에서 물고기, 새, 원숭이, 진짜 사람으로 진화한 얘기(토마스 헉슬리 쪽의 진화론, 당시 대두였음)를 했다. 이 때 "사람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벌레에서 진짜 사람으로 진화했고, 계속 사람을 먹은 사람들은 여전히 벌레이다." "사람을 먹는 사람은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라고 말함. 논리가 웃기기는 하나 이해되기는 한다. (사람을 먹었든 안 먹었든 전부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닌가!)
- 광인일기에서 동생은 구경꾼들에게
"아무리 많이 낳아도 진짜 사람들에게 멸망 당할 거야, 사냥꾼이 늑대를 모조리 잡아 죽이는 것처럼 말이야!" "당신들은 고칠 수 있어. 진심으로 고치라구!" "당신들이 고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다 잡아먹힐 거야." 라고 말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해석이 골 때린다. 광인일기는 이 이전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인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에서 '대외적인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버리면, 서양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벌레 상태의 사람들'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가 숨어 있는 대목이라서.... 혹은 그냥 절박성, 근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절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가 좀 묘한 구석이 있는 것이다. - 제국주의의 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광인일기가 약점으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이 부분 외의 측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 내의 내부 식민(지배자들에게 좋은 사회 룰)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 카프카의 <변신> (1912 집필, 1915 발표): 1918 作 <광인일기>와 동시대 발표. 그레고르가 인간에서 벌레로 변하는 이야기.

루쉰의 「광인일기」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문제의 부분은 이것이다:

(한국어) "사천 년의 식인의 이력을 가진 나는, 처음에는 몰랐었지만, 이제는 알겠다. 진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영어) How can a man like myself, after four thousand years of man-eating history - even though I knew nothing about it at first - ever hope to face real man?

중국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열려있다.

1. 진짜 사람을 만나기가(보기가, 발견하기가) 어렵다, 진짜 사람이 적어서
2. 진짜 사람을 만나기가(대면하기가, 마주하기가) 어렵다, 내가 부끄러워서(면목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1번 해석을 떠올리지만, 2번 해석도 분명히 가능하기는 하다. (사람을 먹는 사람은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2번 해석으로 보면, 처음에는 나도 사람을 먹는 사람인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다. (루쉰 자신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중의적 문장을 썼는가?)

또 다른 부분은 이것이다:

(한국어) 아이들을 구하라(구해라, 건지자)

(영어) Save the children

이 부분을 연극 극본으로 옮길 때, 이 부분은 큰 소리로 옮겨야 하나, 작은 소리로 옮겨야 하나, 남에게 하는 말로 옮겨야 하나, 혼잣말로 옮겨야 하나.

이것을 "아이들을 구하라...." "아이들을 구해라...." "아이들을 구하자(건지자)...." "아이들을 구해야지...." "아이들을 구해야 할 텐데...."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데...."